

도,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 '총력전'

총 사업비 1046억원 규모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15개 기술개발 과제 최종 선정 탄소밸리 구축 등 통한 탄소산업 기반·우수 인적자원·도내 탄소기업·유관기관 협력... 산업부 공모 대응 '최선'

산업부에서 준비한 1,046억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는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이 약 8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통과됐고 연구과제 15개가 확정됐다.

15개 과제는 △방산·항공·우주 분야 3개 △모빌리티 분야 5개 △에너지·환경 분야 4개 △라이프케어 분야 1개 △건설 분야 2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수립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을 연계해 도내 탄소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방산·항공·우주 분야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향후 5년 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쌓아온 탄탄한 산업 기반을 십분 활용할 방침이다.

우수한 인적자원도 활용해 탄소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북도의 경쟁력

기술력 등을 분석해 중점 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 각 분야별 기술력을 지닌 도내 기업,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공모 과제 등에 대응한다. 특히 국내 유일 국산 탄소섬유 생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T-1000급)를 개발한 효성첨단소재, 수소연료전지 스택 주요 부품인 막 전극 집합체(MEA)·지지체를 생산하는 비나텍, 데크카본 하이브리드복합재산업, 일진하이슬루스 등 기술력 있는 도내 탄소기업과 힘을 모으는 복안이다.

여기에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복합소재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탄소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기술개발 과제가 이번 산업부 사업에 담겨 있다"며 "전북도는 최대한 많은 기술개발 지원을 확보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앞당기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가뭄 대처상황 점검·대책 마련 강구

도·정읍시·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 가뭄 대비 합동 대책회의 개최



17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가뭄 관련 부서와 가뭄지역인 정읍시,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7일 도청에서 도 관련 부서와 가뭄지역인 정읍시,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유관 부서 및 기관의 가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대응계획에 협력과 대책 방안을 강구하

고자 열었다.

각 가뭄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의 1월 가뭄 예·경보 발표에 따르면 △생물공용수 가뭄에 정읍(경계) △농업용수 가뭄에 정읍, 김제, 부안(주의) △기상 가뭄에는 정읍, 진안, 임실 순천(관심), 고창(관심)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에서는 가뭄 대응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수시로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지난해 68억 원을 투입해 가뭄대책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60억 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681공, 물병개발 15개소 등 가뭄 예방 및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적극 건

의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가뭄대책비 36억 6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통한 관정개발 및 저수지건설 등의 사업이 3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영농철에 대비해 하천 저수지 저류 등을 활용해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저수율이 낮은 섬진강댐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용담댐, 부안댐 연계 및 타 수계 대체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뭄 경제 단계인 정읍시에서는 물절약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누리집 및 각 읍면동 게시판에 해당 홍보물을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를 통해 마을 방송 등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들은 추진상황 공유 등 업무 공조를 이어가며, 향후 대응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진 도민안전실장은 "가뭄부서 및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도내 가뭄 해소에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도에서도 가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아태 마스터스대회' 서포터즈 모집

내달 16일까지·온라인 접수 신청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위원장 김관영) 대회 참여 분위기 확산과 성공 개최를 위해 서포터즈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지원자격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개·폐회식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조직위 홈페이지(www.apm2023.kr), 구글폼(<https://forms.gle/BuQ5y7moVgkXIA>) 및 QR코드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는 2월 17일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개인블로그, 인

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활용해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고 개최 열기를 확산하는 등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정, 원고료 지급 각종 행사 우선 초청, 유니폼 및 홍보물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더해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지극한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 서해안권 발전사업 2개 추가 반영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갯벌치유센터 사업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서해안 권역의 잠재자원 개발을 위해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전북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2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과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으로 작년보다 추진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과 함께 2025년까지 총사업비 558억 원을 투입,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전북도와 인천·경기·충남이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토부에서 국비로 지원받는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22년 도내에서는 지역의 유산인 고창군 심원면 만물리 일대 옛 염전부지와 주변 갯벌을 결합한 식물원, 철새체험관 등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이 선정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올해에는 군산·고창·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에 산재한 자연경관·역사유적·문화자원을 연계·개발하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과 줄포생태 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힐링 거점을 구축하는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등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15개 참여팀 모집

팀별 8백만원 활동비·멘토링·공동체 간 네트워크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지난 2021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28개 청년공동체를 지원해왔다.

그중 무주 '산골낭만'(2021년), 장수 러닝코루(2022년)는 전국 청년공동체 중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행정인원

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총 15개 공동체(팀)를 선발할 예정이다. 대외활동, 멘토링,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 활동 등 각 팀당 약 8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전북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

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전주, 완주, 군산, 익산 제외한 10개 시·군)과 관련한 활동 계획을 제출한 팀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역 활력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전북청년허브센터 온라인 누리집(www.jb2030.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업용 저수지 안전 확보 총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군이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총 1,771개소 중 67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태풍·호우 증가 및 시설의 노후화로 저수지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가 필요한 만큼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의 '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정기 점검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이하인 시설이거나 50년 이상 경과해 노후로 인한 재해 위험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운용 실태 △저수지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성 △대상 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보완·강신 △시설관리 담당자 지정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김재훈 기자

모집	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영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겸임위원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등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p>*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의 전문강사</p> <p>◎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쉽(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p> <p>◎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p> <p>◎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p> <p>◎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p> <p>◎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p>		
<p>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